

리더의 인격

2021년 9월 30일 육군7공병여단 청호대대 2중대장 임무 수행을 시작했다. 중대장은 중대의 병력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직책이다. 중대의 목표나 방향을 이끌어 가는 중심인물, 즉 중대의 리더다.

리더란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부하들이 리더의 뜻에 따라 일하려면 그를 존경하고 신뢰해야 한다. 이런 힘은 리더의 인격에서 나온다. 인격은 지휘관에게 가장 중요하다. 구성원들은 능력보다 인격을 보고 그 지휘관의 뜻에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나는 중대원들과 함께 을지 자유의 방패(UFS)/타이거(TIGER) 연습과 연계해 적 지형극복 시범식 교육을 실시했다. 능숙한 시범을 보여주기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고 날씨도 무더워 중대원들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중대장인 나 역시 점점 예민해져 갔다.

시범식 교육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최원재 대위
육군7공병여단 청호대대

날 대대장께서 교육 준비 현장에 오셨다. 중대원들의 지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대대장은 현장에서 부대원들과 동고동락하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독여줬다. 중대 구성원들의 개성과 장점을 언급하며 힘들 때일수록 서로의 오히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언도 해줬다. 그 덕분에 중대원 모두 하나가 돼 시범식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중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리더에게는 균형과 조화의 감각이 중요하다.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지만 하고 느슨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언

젠가 그 시위는 끊어지게 마련이다. 교육을 준비하는 힘든 과정을 경험하며 배운 한 가지가 그것이다. 리더가 상황에 매몰돼 숲을 보지 못하면 그 조직은 위태로워진다. 그렇다고 숲만 보고 당장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하는 나무를 경시해서도 안 된다.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해결해 나가면서도 미래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하며, 그 바탕에 리더의 성숙된 인격이 있어야만 조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너무나도 능숙하게 부대원들을 아우르며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대대장에 비해 내 모습은 미숙했다. 하지만 지켜보며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이 가까운 곳에 있어 두렵지는 않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듯 뛰어난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 역시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자라는 각오를 다시 새겨본다. 미숙한 리더를 믿고 따라오는 중대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공군입니다

훈련병의 편지

최승우 이병
공군교육사령부
신병4훈련대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저를 공군으로 이끌었던 문구입니다. 누군가 “이 매력적인 문구에 어울리는 공군인이 되었느냐?”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그렇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지난 5주간의 훈련이 나의 조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노라”고 당당하게 외칠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며 사회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고되고 때로는 보람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바쁘게 흘러가는 훈련병의 시계는 맘을 흐르게 하고 목을 닳게 했지만, 우리는 진정한 공군인으로 서서히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매 훈련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소대근무 훈련병으로 일했던 경험은 제 군 생활 중 가장 ভাল 선택이었습니다. 소대원들 앞에 설 때는 책임감을, 뒤에 설 때는 헌신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 빨리 움직여야 할 때도, 소대원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응원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은 앞으로 더욱 길러질 것입니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뒤편던 전투 땀결음을 떠올립니다. 이곳저곳에서 힘찬 함성이 터져 나오던 그때의 전율을 기억합니다. 매주 난이도가 올라갈 때마다 열정의 높이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군장의 무게는 우리의 열정을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뛰어아할 거리가 늘어도 끊이지 않던 우리의 군가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쳐가는 동기들을 밀어주고 끌어주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우리의 함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팀워크를 증명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5주라는 시간 동안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공군 핵심가치를 마음에 품고, 각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은 도전의 연속일 것이고, 헌신의 마음 없이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문성을 갈고닦아 탄생한 공군인으로서의 팀워크를 완성해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이 떨림은 앞으로 저와 사랑하는 병854기에 대한 기대에서 나오는 심장의 전율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의 뜨거운 심장 박동 소리는 비행기의 엔진 소리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 떨림을 늘 간직하며, 앞으로 더 밝게 빛날 우리의 앞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군 핵심가치를 외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전, 우리의 정신이다! 헌신, 우리의 마음이다! 전문성, 우리의 자존심이다! 팀워크, 우리의 경쟁력이다! 필승!

QR코드를 통해 ‘훈련병의 편지’ 영상 콘텐츠를 국방일보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육군부사관의 미래 ‘학군부사관후보생’

군 부사관의 미래를 짊어질 RNTC 8기 신입 부사관들이 얼마전 영예로운 임관식을 맞았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던 후보생들이 이제는 육군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벌써 4번째 RNTC 후보생들을 임관시키지만, 매년 마음 한편에서 밀려오는 짜릿한 감정은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처음 만났던 그때, 후보생들은 아직 군인이 되기보다는 대학생의 모습이 더 강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넘쳤던 초창기 후보생들이 학군단 생활 속에서 단체생활의 규범을 체득하고, 군인의 자세를 갖추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입교 후 부족했던 체력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땀결음 등 꾸준한 단련을 통해 갈고 닦았습니다. 그 결과 임관종합평가 체력측정에서 전원 합격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 교내 교육과 입영 훈련을 통해 군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등 군인으로서 기본



이동하 상사
육군부사관학교 301학군단
(경북전문대)

소양을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군단에서 실시한 경북지역 6·25 참전용사와의 만남, 전쟁기념관 견학·전사적지 답사, 군악·의장대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가의 소중함과 감사함, 소속감, 봉사정신을 키우며 군인으로서의 빛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관하며 RNTC 후보생 대표로 시가행진에 참석하는 등 군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미래 육군 부사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방학에는 3주간 입영훈련을 실시합니다. 일반 대학생들은 방학 동안 집에서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지만 우리 후보생들은 무더운 날씨와 혹한의 추위 속에서 훈련에

매진합니다. 훈련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 팔로워십을 함양하고, 투철한 군인정신 함양 및 부사관 가치관을 확립하며, 강인한 체력과 장병 기본 훈련 지도 방법을 체득하고, 병영생활 지도능력을 배양합니다. 이를 통해 엘리트 부사관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고 경험을 쌓아온 RNTC 8기는 이제 육군의 미래를 짊어질 준비가 됐습니다. 야전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육군의 미래를 밝히려 군 발전에 기여하는 멋진 부사관이 될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RNTC 8기 후보생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본 단장, 훈육관, 교수들은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엘리트 부사관으로 성장한 여러분을 보며 감사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후보생들이 꿈을 향해 도약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RNTC 8기! 육군 부사관으로서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부사관 선배로서, 전우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매월 말 응모한 휴대전화 번호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35, (일반)02-2079-3735

